

전북 맞춤형 '혁신도시시즌2' 속도

13개 이전기관·주요기관 참석 상생협의회 농진청 지역연계 사업안 제안 등 협력 강화

전라북도 혁신도시 상생협의회가 15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렸다. 상생협의회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13곳과 전북도, 도교육청, 전주, 완주군, 도 경찰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5번째 회의다. 지난 9월 한국식품연구원 회의 이 전으로 13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

리 되고 공식으로 있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되어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날 상생협의회에서는 공공 편의 시설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정주여건 관련 논의와 기관간 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정주여건 관련

불편사항으로 시외버스 노선 확대와 교통시설 개선을 건의, 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도내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제안, 도내 실정에 맞는 투자를 통해 지역 농어업 특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농업발전 방안을 전북도와 논의했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전북도에 맞는 혁신도시시즌2를 준비하기 위한 이전기관과 도·시군 및 지역 주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자주 소통하는 것이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국가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전공공기관에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홍보관을 안내하며 국민연금공단 발전내역과 국민 노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최상위 체납자 12억여원 체납

전북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개인, 법인)의 성명(법인명),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전라북도 홈페이지, 도보에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총 1,005명(법인 246, 개인 759), 체납액은 379억원(법인136억원, 개인 243억원)이며, 최상위 체납자는 군산시 G주택건설 12억27백만원, 개인은 전주시 한도씨로 4억73백만원이다. 도에서는 명단공개에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사전안내 기간을 부여,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시군별 분포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6.3%(767명), 체납

액의 77.6%(294억원)을 차지했다. 체납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 건축업 73개(29.7%), 제조업 60개(24.4%), 부동산업 25개(10.1%), 도소매업 23개(9.4%), 서비스업 등 기타 65개(26.4%) 순이다. 또한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630명(67.5%), 248억원(65.4%)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단공개를 운영하였으나, 고액체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개인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구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환경청, 환경분야 인재 양성교육 실시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법정)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김종국)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주에 걸쳐 환경분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맞춤형 e-사람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비취업생을 대상으로 환경 각 분야별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기업이 원하는 환경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의 환경기술인에게 환경 각 분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한 것으로 환경분야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 및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취업컨설팅과 함께 정부의 환경정책 추진방향 등을 교육한다. 1주차에는 환경산업 고용시장 현황 및 전망, 환경부의 환경정책 추진방

향, 대기환경 분야 특강이 진행되며, 2주차에는 수질환경·폐기물 분야 특강, 환경분야 선배와의 만남으로 공기업, 공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3주차에는 화학물질 분야 강의와 기업체 적성 및 직무검사 시험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하고, 4주차에는 전라북도내 환경우수기관 실습체용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게 된다. 마지막인 5주차에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에 대한 실습과 기업이 찾는 환경인재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전 국정원장 3인,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검찰, 국고손실·뇌물공여 혐의 권순호 부장판사 구속 여부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정보원장 3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6일 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같은 날 오후 2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영장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국정원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 해까지 넘어간 특수활동비 총액은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 3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16일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 완성"

청와대, 문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총평 "북핵 평화해결 국제공조... 평창올림픽 홍보도"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성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총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요소인 아세안과의 미래공동체 발전 기반을 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개월 간의 외교공백을 완전히 복구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박 대변인은 "특히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드 문제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에 이어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미래 공동

체 구상을 제시했다"며 "이로써 러시아와 유럽은 물론, 아세안, 인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외교 영역을 더욱 넓히고 다변화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8~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10~1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12~14일) 일정을 언급하며 "대(對) 아세안 외교를 획기적

으로 강화하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천명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한·중 관계 개선 내역을 재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력을 조속히 정상화 하는 데 합의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문 대통령의 12월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각국 정상들로부터 대북 압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조를 이끌어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로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중국·러시아 등 주변4국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 아세안 핵심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북핵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항구적 평화구축, 제재와 압박 강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유도 노력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성과에 관련해 "각국 정상들과 면담에서 내년 2월 평창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 당부했다"며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아세안 양측 국민 간 상호 방문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 및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각국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뉴시스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영접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해 포항 지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